

##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조이스의 『율리시스』의 「로터스 먹는 종족」 읽기

강 서 정

### I. 서론

서구의 문화를 정의하는 두 가지 큰 줄기는 바로 헬레니즘(Hellenism)과 헤브라이즘(Hebraism)이다. 헬레니즘은 그리스, 로마 문화에 기원하는 인간중심주의이며 헤브라이즘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근간으로 하는 기독교 믿음을 의미한다.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율리시스』(Ulysses, 1922)는 20세기 초반의 아일랜드 더블린(Dublin)을 서구 문화의 이 두 축을 중심으로 해체하면서 새로운 인간중심주의, 새로운 그리스도상을 제시한다. 이러한 작업은 당대의 당면 문제 및 이데올로기(Ideology)를 진단하면서, 마비된 더블린이 나아가야 할 비전(Vision)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선, 조이스가 『율리시스』에서 취하는 전체 구도는 고대 그리스 작가, 호머(Homer)의 작품을 근간으로 한다. 또한, 인간의 욕망을 부정하는

가톨릭 사회에서 이 작품이 새로운 휴머니즘을 강조함은 헬레니즘을 다시 계도에 올려놓으려는 작가의 의도를 드러낸다. 다음으로 조이스는 교조적인 가톨릭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그리스도의 근본이 당대의 가톨릭 교리와 다름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아일랜드 가톨릭의 여성에 대한 관점, 인간의 성에 대한 관점이 구약은 물론, 신약의 근본정신과도 다름을 드러냄으로써 헤브라이즘의 본질을 파헤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조이스는 윤리적 틀에 갇힌 당대 더블린에 심미적 관점을 조화시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조화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5장, 「로터스 먹는 종족」(“Lotus Eaters”)은 호머의 원전과 더블린의 대응 관계(Correspondence)만 잘 파악하면 쉽게 읽힌다고 여겨져 왔다. 따라서 5장을 대상으로 한 논문들은 대체로 호머의 원전과의 상응 관계나 블룸의 나르시시즘(Narcissism), 혹은 꽃말과 관련된 연구가 대다수였다. 그러나 애나 핀(Anna M. Finn)이 지적하듯이 겉보기에 대응 관계를 보이는 부분도 면밀히 들여다보면 명백한 차이가 드러난다. 핀이 논문에서 분석한 꽃과 꽃말 간의 간극, 호머의 원전과 조이스 작품 간의 간극, 마사(Martha)의 편지와 블룸(Bloom)의 해석에 드러나는 간극 등이 그 예이다(623). 이렇듯 대응 관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작가가 이 장에서 추구하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근본에 대한 문제의식이 표면에 떠오른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조이스와 호머 간의 상응 관계를 조명하면서 동시에 조이스가 제시하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근본을 파헤치려 한다. 특히 지금까지 블룸이 어떻게 새로운 그리스도상으로 그려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하기에 본 연구는 「로터스 먹는 종족」을 읽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것으로 믿는다.

호머의 원전에서 오디세우스는 폭풍우를 피해 항해하다가 로터스(연꽃)를 먹는 나라에 도착한다. 그는 부하들을 보내 그 지방의 성격을 알아오라 지시하지만, 현지인이 주는 연꽃을 먹은 부하들은 귀향을 포기한 채 아무 의욕 없이 주저앉는다. 오디세우스는 억지로 이들을 끌고 와 배에 결박시키고 출발을 명령한다. 이러한 모험담은 그를 환대한 알키노스

(Alcinous)에게 전하는 형식으로 진술된다. 연꽃을 먹는 나라에 도착하기 직전 오디세우스와 그의 부하들은 어떤 지방을 공격하여 여성과 물품을 약탈하는데, 원조를 위해 물려드는 군사를 피해 가까스로 피신한 것이다 (호메로스 338).

자연스럽게 「로터스 먹는 종족」 장에는 호머의 원전과 상응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우선 로터스는 사람들을 향락에 빠뜨려 이성을 마비시키는 꽃이다. 흥(Hshin-yu Hung)은 로터스가 본래 불교에서 영적 완결을 의미함과 동시에 성적인 의미를 전달하기에 조이스가 5장에서 종교와 성을 연결 짓는다고 지적한다(349). 작가 조이스는 블룸의 눈을 통해 더블린 거리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형태의 마비를 보여준다. 이는 아일랜드인들이 빠져 있는 종교와 경마는 물론이고, 이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식민주의 잔재들까지 포함한다. 디그넨(Dignam)의 장례식에 가기 위해 배회하는 더블린에서 블룸은 차(tea)를 선전하는 문구를 읽는다(U 5.17-19; 5.27-29). 마침 더블린의 기후는 차의 원산지인 극동의 기후처럼 뜨겁다. 그는 우체국에서 “헨리 플라워”(Henry Flower)라는 가명으로 마사의 편지를 받아 오는데, 우체국에는 파병 모집 광고가 부착되어 있다(U 5.56). 포스터에서 군인들은 화려하게 치장한 채로 마치 최면에 걸린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U 5.73). 블룸에게는 연애편지 역시 로터스에 지나지 않는다. 성 불능 상태인 그는 언어로써 자신의 상실감과 욕망을 해소하려 한다. 더 나아가 조이스는 언어로 된 글, 책까지도 로터스로 형상화하는데, 바다에 둥둥 떠서 책을 읽는 남자에 대한 연상(U 5.37-39)이 그것에 해당한다. “둥둥 떠 있는” 이미지는 이 장 전체에 계속 나타나는데, 이는 로터스의 이미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떠 있는 상태”와 “책 읽기”는 블룸의 연애편지와도 연결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로터스 먹는 종족」 장에 시종일관 드러나는 로터스는 바로 가톨릭 종교이다. 블룸은 가톨릭 예배에 참석한 남녀를 표현할 때 사람이 아닌 모자나 미사보의 움직임으로 묘사하는데, 여기에도 역시 모자나 미사보가 둥둥 떠 있는 듯한 이미지가 굴절되어 있다. 이들은 종교라는 향락에 빠져 제대로 보거나 생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특히

미사 중 잠들어 있는 남자를 비꼬는 말, 앞을 보지 못하면서 일렬로 움직이는 신자들의 묘사는 계속 탄생각을 하는 불륨이 오히려 각성 상태임을 드러내고 있다. 미사 중 불륨은 성체성사를 세속화하고 “죽은 몸”을 먹는 것보다 살아있는 남성의 몸이 더 생명ियो, 구원의 방편임을 분명히 한다.

이렇듯 『율리시스』의 5장, 「로터스 먹는 종족」은 남성의 생식 능력에 초점을 둔다. 작품에서는 죽은 시신이 물 위로 떠 오르는 이미지에서 그리하듯(U 5.170-72) 성체와 성혈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믿음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마사가 편에 꽃아 보낸 꽃처럼, 그리스도 역시 못에 박혀 죽는다. 불륨은 꽃말이 연애 감정에 낭만을 입히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시 신비화이자 죽은 몸에 대한 숭배로 인식한다. 성전을 정화할 때 그리스도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요한 2:13-22)고 한 부분에서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듯이 「로터스 먹는 종족」 장의 마지막 장면에서 불륨이 물에 몸을 담근 것은 “살아있는 성체”이면서 동시에, 성전 정화이자, 새로운 생명의 그리스도를 대체함을 선언하는 것이다.

때문에 「로터스 먹는 종족」에는 호머의 원전은 물론 성경 일부를 녹여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한다. 더불어 작가로서 소설을 쓴다는 것이 혹 로터스는 아닌가에 대한 작가 조이스의 고민, 그리고 그에 대한 발칙한 도전 등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다시 말해 말씀(Word)인 그리스도가 성적 활력 없는 연애편지(word)와 연결되다가 작가의 작품(words)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륨의 남근으로 옮겨짐으로써 상징계의 그리스도가 실재계의 그리스도로 대체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로터스 먹는 종족」 장에 나타나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로터스를 중심으로 어떻게 균형을 맞추어 가는지를 조명한다. 우선, 원전과 공명하는 헬레니즘적 측면을 분석하고, 성경이 어떻게 작품의 바탕에 깔려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불륨과 상응하는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조이스의 작업이 20세기 초반 서구 문화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어떤 식으로 그려내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

자 한다.

## II. 로터스와 마비된 더블린

호머의 원전에서 오디세우스는 부하들과 함께 로터스 이터스 지역에 도착하기 전 한 장소를 약탈한다. 약탈의 대상은 여자와 물품들인데(338), 조이스는 이 부분을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블룸의 일면과 더블린에 만연한 식민주의의 잔재로 자신의 작품에 풀어 놓는다. 우선, 블룸은 차 선전 문구를 들여다보며 극동 지방을 떠올린다. 이곳은 풍요롭고 더운 지방으로서 사람들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자는 데에 소비한다(*U* 5.17-19; 5.27-37). 물질적으로 풍요롭다는 것은 이곳을 약탈하고자 하는 서구인들의 욕망을 자극한다. 또한, 이곳 원주민들의 ‘게으름’(*U* 5.31-34)은 이들을 ‘문명화’하겠다는 일종의 대의에 일조한다. 여기에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포교의 대의가 더해진다. 마침 블룸이 더블린을 돌아다니는 때도 꽤 무더운 하루로 그려지고 있다. 블룸은 “헨리 플라워”라는 가명으로 마사라는 여성과 연애편지를 주고받는데, 마사의 편지를 확인하려고 우체국에 들렀을 때 군 모집 광고를 보게 된다. 길보기에 화려한 광고 속 인물은 마치 최면에 걸린 듯한 표정으로 일정한 구호에 따라서만 움직인다(*U* 5.73). 또한, 블룸이 더블린을 돌아다니는 동안 보게 되는 거세된 말과 마부, 아일랜드인들의 도박 및 경마에 쏟는 열정들은 모두 로터스를 먹고 마비된 율리시스의 부하들과 비슷하다. 블룸은 술에 빠진 머코이(M'Coy)를 만나기도 하고, 흑맥주로 돈을 번 아이비 경(Lord Iveagh)을 떠올리기도 한다. 더불어 영국 스포츠인 크리켓(Cricket)을 아무 생각 없이 즐기는 사람들도 무심코 지나간다.

그러나 로터스를 즐기는 인물은 무엇보다 블룸이기도 하다. 그는 마사라는 여성과 언어로써 자신의 욕망을 풀어 놓는다. 그는 마사에게 전혀 환상을 갖지도 않고 있으며, 마사가 요조숙녀인 척하여도, 그녀의 말에 속지

않는다. 아들이 죽은 이후로 성 불능 상태인 그에게 마사와의 언어적 유희는 은밀한 그의 욕망을 해소하는 중요한 방편이다. 그는 아내를 의식하여 숨어서 마사의 편지를 읽고 철교 밑으로 찢어 던져 버리는데, 편지 조각들이 공기 중에 하늘하늘 떨어지는 모습은 마치 연꽃이 물에 뒹뒹 떠 있는 모습을 연상시킨다(U 5.300-02). 흥은 블룸이 마사와의 편지 교환을 통해 “몰리(Molly)의 사랑을 잃게 되었다는 트라우마를 떨쳐내고자 한다고” 설명한다. 마치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아이가 띠를 멀리 보냈다가 다시 가까이 가져옴으로써 어머니의 떠나 있음에 대해 능동적인 보상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다.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이 장에서 블룸은 나르시시즘을 드러내는데, 서신교환 역시 연인 상호 간의 사랑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위안을 위한 일방적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Hung 352-53). 다시 말해, 블룸의 마사와의 서신교환은 그의 자위행위와 본질상 다를 바가 없다.

보통 「로터스 먹는 종족」 장에서 로터스 꽃의 이미지는 ‘떠 있는’ 것으로 표상된다. 그는 일전에 물 위에 떠서 책을 읽는 사내 그림을 본 것을 상기한다(U 5.37-39). 여기서 책 역시도 ‘뒹뒹 떠 있는’ 이미지 덕분에 로터스와 연결된다. 작품 중 “이야기한다. 마치 이야기가 상황을 낫게 할 수 있다는 듯이”(talk: as if that would mend matters, U 5.76-77)를 통해서도 드러나듯 조이스는 블룸의 편지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작품 활동에 이르기까지 일종의 로터스 꽃이 될 수 있음을 의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학작품이 로터스 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이스는 자신의 작품이, 로터스 꽃을 먹고 마비된(바다에 뒹뒹 떠서 책을 읽는) 남자를 그린 화가처럼, 마비된 아일랜드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작성 상태로 이끌고자 한다. 일례로, 블룸은 성당에 들어가 아프리카인들의 개종을 떠올린다(U 5.323; 5.334-37). 현재 이 부분을 읽어낸다면 ‘정치적 정확성’(political correctness)과 관련하여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는 ‘미개하고 비이성적인’ 원주민들이 “우유를 빨아 먹듯이”(U 5.336) 종교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상기시킴으로써 더블린 사람들을 조롱

하고 있다. 더불어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예수의 이미지와 옆으로 드러누워 편안히 웃는 모습을 하는 붓다(Gautama Buddha)를 비교함으로써(U 5.328-29) 세상의 가치가 매우 다를 수 있으며, 종교 역시도 획일적인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자 한다.

성당 안의 여성들은 미사보를 쓰고 일렬로 성체를 모신 후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U 5.353-54). 미사보로 인한 시야의 가려짐은 그들이 실존적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음을 상징한다. 이들은 “어스름과 불빛을 뒤로하고”(U 5.376) 종교의식을 치른다. 성당 안에서 불륨은 자신의 모자를 바라보며 왜 모자를 써야 하는지를 되묻는데(U 5.355-56), 모자는 아일랜드의 관습과 예법을 의미하고, 그가 계속 가지고 다니는 신문지는 상업 광고와 부음, 경마 소식을 전함으로써 아일랜드 더블린의 현실을 마비와 죽음으로써 상징하고 있다. 불륨이 비누를 신문지 안에 숨기는 것은 일상 속 식민주의, 언어를 통한 쾌락을 숨기는 것이며, 이는 이데올로기와 실체의 관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고해 성사소에서 자는 사람을 조롱하는 것이나(U 5.367-68), 사람을 ‘모자’나 ‘미사보’로 지칭하는 것은 모두 이들이 로터스 꽃을 먹고 실존적 삶을 잃었음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불륨은 고통 중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나, 예수의 몸과 피(그가 생각하기에 이미 죽은 시신의 일부)를 나누는 행위는 예수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가톨릭교회의 설정이자 창작으로 여긴다. 불륨의 시각에서 가톨릭 신자들은 성체라는 “롤리팝”(Lollipop, U 5.360)으로 일종의 긴장을 풀고 만족감을 얻는다. 반면 불륨은 성당으로 들어가기 전 “신성한 돌의 차가운 냄새에” 정신이 번쩍 들어있는 상태이다(The cold smell of sacred stone called him. U 5.338).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는 선택을 받은 귀한 돌입니다. 여러분도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일 산 돌이 되십시오. (베드로 2:3-5)

위의 성경 인용문에서도 드러나듯이 “신성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또한 블룸이 세속화된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신성한 돌의 차가운 냄새에” “부르심을 받는”(call)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가 타락한 교회가 아닌 구세주 자체를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세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를 통해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느님을 알아보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기독교의 근본과 마주하는 것이다. 더불어 하늘의 ‘소명’(calling)을 받고 그렇게 부여된 ‘권위’로 교회를 정화하고 새로운 그리스도로서 자신을 선포하는 것과 관련된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점은 마사의 꽃과 핀이 어떻게 가톨릭 종교와 연관되느냐이다. 블룸은 마사의 편지에 동봉된 핀으로 고정된 꽃을 확인하면서 여성의 옷을 고정하는 핀으로 연상하다가(U 5.275-78) 이후 가톨릭 신부의 옷을 고정하는 핀을 떠올린다(U 5.371-72). 고정하는 핀은 일종의 허식과 허례로 여겨진다. 분명 핀에 박힌 것은 일종의 로터스인 ‘망각의’ 꽃이다. 망각의 꽃은 ‘여성의 몸’을 고정하는 핀이기도 하다. ‘여성의 몸’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핀을 다 뽑아야 한다. 블룸 역시도 편지에 동봉된 꽃을 떼기 위해 핀을 빼 던져 버린다. 그리고 이는 다시 가톨릭 교회의 허례허식으로 연결되며, 궁극적으로 ‘핀’(못)에 박힌 그리스도의 몸(죽은 몸)으로 치환된다. 가톨릭에서 “이는 내 몸이다.”라는 성경 말씀은, (혹은 가톨릭 사제의 미사통상문은) 예수의 희생과 사랑,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핵심인데, 블룸은 「로터스 먹는 종족」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는 내 몸이다”(U 5.566)라고 선언하고 있다. 때문에, 작가 조이스의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성경과 「로터스 먹는 종족」 장의 병렬 관계, 예수와 블룸의 병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 III. 옛 계명에서 새 계명으로

이글연은 『젊은 예술가의 초상』과 「로터스 먹는 종족」 장을 분석하는

자신의 논문에서 조이스가 “영국의 압제보다 가톨릭교회를 더 억압적인 것으로” 파악했음을 언급한다. 그에 따르면 가톨릭교회는 “영국 제국주의와 결탁한 세속화한 지배 질서”이며, “교회의 의식은 신자를 장악하는 일종의 권력”이다(359).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스티븐의 성직 거부는 정신에 전제 권력을 행사하는 아일랜드 교회와 자유로운 예술적 감수성 사이에 공존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353)는 그의 분석은 「로터스 먹는 종족」 장의 해석에도 유효하다. 이공연은 “조이스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교회의 권위와 신성성을 해체하는가를 드러냄으로써” 아일랜드 종교와 교회에 대한 조이스의 태도와 시각을 드러내고자 하였다(348). 「로터스 먹는 종족」 장에서 블룸은 “종교와 종교의식의 절대성을 상대적으로 보려는 태도”를 드러내는데(358), 이는 그가 여러 차례의 개종을 통해 가톨릭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354). 다시 말해 블룸은 종교 간의 위계와 서열을 상정하지 않으며 상이한 종교 간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한다(356).

블룸은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바지를 갈아입어서 마침 “열쇠”와 물리 화장수의 “처방전”을 놓고 왔다(U 5.467-68). 이는 그가 정해진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지 않은 자유로운 사고를 하는 혁명적 인물임을 드러낸다. 가톨릭 미사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주로 한 곳을 바라보며 오고 가지만, 블룸은 끊임없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역시 그가 로터스 꽃을 먹지 않아 제정신인(sober) 상태임을 표상하고 있다.

작품 안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을 비트는 표현들이 등장한다. 우선 머코이가 말하는 “샌디코브(Sandycove)에 언제 떠오를지 모르는 익사체가 있다”(U 5.170-71)는 말은 성혈에 담긴 성체를 나타내기도 한다. “저 약사 자기 몸부터 좀 건사해야겠어”(U 5.478-79)라는 생각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해 “너 자신이나 먼저 구원해 보아라”(마태오 27:39-43)고 야유하던 사람들을 떠올린다. “독약이 유일한 치료제가 되기도 한다. 전혀 뜻하지 않은 데에 치료법이. 자연이란 오묘해.”(U 5.483-84)에서 성은 죄가 아닌 축복이자 생명이라는 관점이 될 수 있음은 블룸이 새로운 그리스도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 마사가 보낸 꽃은 ‘꽃말’을 통한 사랑의 낭만화이다. 보통 꽃말을 포함한 사물이 의미를 구성하는 상징어는 동양에서 기원이 되어 18세기에 서구로 유입되었고, 19세기에 이르러 연인 간 소통의 방법으로 꽃말이 사용된다. 꽃말은 낭만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당대 식물의 성적 기관(sexual organs)을 인간의 기관과 연결시키는 관습도 있었다(Hung 349-50). 조이스가 마사를 통해 사용하는 꽃말과 그것을 해석하는 블룸의 태도 간에는 이처럼 낭만성과 성적 욕망이 한 데 얽혀 있다.

여성이 꽃말을 좋아하는 것은 어쩌면 그들에게 성적인 욕망의 표출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의 꽃말은 여성스러운 순수함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상징적 언어를 통해 성적 욕망을 드러내고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인 것이다. 일례로 홍은 제비꽃(violets)의 예시를 든다. 이 꽃은 “정숙함”(modesty)을 보통 의미하지만, 발음상 “욕보이다”(violate)와 비슷하고 이는 여성의 처녀성을 박탈한다는 의미도 볼 수 있다(350). 조이스는 이런 식으로 꽃말을 통해 전혀 다른 의미가 함께 전달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마사가 “단어”(word)를 “세계”(world)로 혼동한 것과도 연결된다(U 5.245). 그녀에게 상징적 언어는 또 다른 세계를 의미하지만, 한편으로 언어와 물리적 세계가 일치하지 않아 늘 공허함을 느낀다. “꽃말. 여자들은 그걸 아무도 들을 수가 없어서 좋아한다.”(U 5.261-62) 즉, 여자들은 자신의 마음속 채워지지 않은 욕망을 꽃말로 낭만화함으로써 그들의 욕망을 들키지 않아 좋아한다. 이 부분은 예수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알아들어라”(루가 8:8) 하는 부분과 대응한다.

꽃말처럼 그리스도 역시 설교를 할 때 은유를 사용하였다. 사람들은 특정한 일화나 상황을 들을 때 공감하고 이해한다. 예수는 로고스(Logos)를 고답적인 학자들의 언어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한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은유이다. 예수가 직접 말씀 하듯이<sup>1)</sup> 예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을 알 수 있으며, 하느님께 다

1) 예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

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의 비유 덕분에 사람들은 그들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자애로운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설명한 부분이다(루가 15:11-32). 또 씨 뿌리는 것에 대한 비유도 있다. 씨가 자갈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잘 뿌리내려 나무로 클 수도 있다. 이는 복음의 씨앗이 인간의 마음이나 품성에 따라 사라질 수도, 깊게 뿌리내릴 수도 있다는 비유이다(루가 8:4-8). 대개 예수의 복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대단한 학자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들에게 하느님은 상상할 수 없는 두렵고 큰 존재였을 것이다.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과 하느님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 예수는 보통 사람들이 가장 잘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비유를 활용하여 복음을 선포하였다.

네이선의 목소리다! 그 사람 아들의 목소리야! 슬픔과 변민으로 내 품에서 죽어가는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간,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아버지의 하느님을 떠나간 네이선의 목소리가 들린다.<sup>2)</sup> (U 5.203-05)

네이선(Nathan)은 자신을 떠난 아들 때문에 슬퍼하면서 친구, 아브라함(Abraham)의 품 안에서 사망하였고, 위의 화자는 바로 네이선의 그 친구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눈이 멀어 네이선과 비슷한 목소리를 가진 네이선의 아들을 손으로 더듬는다(Caspel 599). 비록 화자가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의 친구라 할지라도 위의 인용문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가 모든 것을 잃은 후 다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상기시킨다. 그럼에도 이 장의 뒷부분에서 탕자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넣음으로써 불림은 성경 내용을 비틀고 있다.

---

지게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으니 나의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알게 되었다. 아니 이미 뵈었다”하고 말씀하셨다(요한 14:6-7).

2) 이후 『율리시스』 번역은 이종일의 출판 예정 번역본(문학동네)에서 인용한다.

도박이라. 최근에 도박 바람이 장난 아니야. 신문 배달 아이들이 6펜스에 걸려고 도둑질을 하질 않나. 커다랗고 연한 칠면조를 상품으로 내건 추첨식 판매에 달려들질 않나. 단 3펜스에 크리스마스 정찬을. 잭 플래밍은 도박하느라 횡령을 저지른 후 미국으로 튀었지. 지금은 호텔을 경영한다나. 그런 자들은 돌아오는 법이 없어. (이텔리체 강조는 필자가 함) (U 5.544-48)

하느님은 인간을 극진히 사랑할 수 있어도, 하느님을 떠난 인간이 좀처럼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왜 가톨릭 국가에 사는 블룸이 이런 생각을 하였을까? 아마도 그는 가톨릭교회가 진정한 복음을 전달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문제의식은 블룸이 고해성사에 대해 언급하는 곳에 드러난다.

고해. 누구나 하고 싶어 하지. 그럼 죄다 말씀드리겠어요. 회개. 제발 저를 벌해주세요. 대단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지. 의사나 변호사보다 더. 안달이 난 여자. 그리고 저는 소곤소곤소곤. 그래서 부인은 속닥속닥속닥? (U 5.425-28)

블룸이 언어를 통해 성적 유희를 하듯이(이것은 진정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 가톨릭 신자 역시 언어(word)를 통해 기쁨이나 위안을 얻는 것이다. 블룸의 시선에 이것은 진정한 회개나 회심이 아니고, 구원은 더더욱 아니다. 다시 말해 언어와 실체 간에 거리가 있다는 작가 조이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상징적 언어와 실체가 서로 ‘미끄러지는’ 현상을 지적함으로써 조이스는 언어를 통한 종교의식을 또 다른 로터스로서 비판하고 있다. 앞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탕자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본래 인간이 욕망을 갖은 존재임에도 가톨릭에서는 그것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탕자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교회의 견고한 틀, 위선적인 교리로 인해 등을 돌리는 것이다.

부유하는 로터스의 이미지는 맨 마지막 장면에서 목욕탕 물속에 떠오르는 블룸의 신체 일부분으로 마감된다. 다시 말해 ‘죽은 시신’을 먹기보

다, 살아있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남근이 더 중요함을 조이스는 선언하고 있다. 블룸은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해 낭만화된 사랑이 아니라, 몸을 고정하여 욕망을 금지했던 가톨릭이 아니라, 실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블룸의 몸을 구원의 표정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손승희는 조이스가 “이름 없는 꽃인 양 꽃을 던진 후 꽃말의 의미를 확장시키고, 식물 이미지로 신체를 감싸고 나서 한 송이 꽃으로 5장을 마무리 짓고 있음을”(205) 논문에서 분석하고 있다. 앞의 마사가 보낸 꽃이 여성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나 블룸의 몸으로 치환되는 것이다. 블룸이 상상 속에서 목욕탕 물속에서 이완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마치 아기가 어머니의 자궁 안 양수 속에 편안히 누워있는 모습을 상기시키기도 한다. 즉, 남근이 생명 잉태와 연결되어 남성의 성을 통해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선언하는 듯하다.

#### IV. 예수 그리스도와 블룸

그렇다면 블룸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상응 관계를 이루는가? 우선, 그는 유대인이다. 개종을 여러 번 한 그는 하나의 교리에 묶이지 않은 자유로운 관점을 유지한다. 때문에, 종교 간 위계 및 서열을 인정하지 않으며, 종교 간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가톨릭 신부의 권위 생성을 문제 삼는다(이궁연 356). 그는 더블린 사회에 온전히 수용되지 못하는 아웃사이더(outsider)이자 더블린을 배회하는 동안 소외당한 인물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던지는 온유한 사람이기도 하다. 일례로 그는 컴벌랜드 스트리트(Cumberland street)에서 얼룩 고양이를 발견하고 그들을 방해하지 않으려 노력한다(U 5.233-35). 남들이 지나치는 이웃들이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활을 하는 동안 창녀와 죄인들을 가까이하였고

당대 사회에서 견지하는 형식 위주의 위선을 꾸짖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둘기 상인을 비롯한 세속적인 교회를 정화하며 “이 교회를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요한 2:19)는 말을 한다. 여기서 “사흘 만에 새로 세우는 교회”는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의미한다. 즉,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는 의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상징하듯 블룸 역시 자신의 살아있는 몸을 새로운 교회로 세우고 있다. 조이스의 시선에서 부활에 대한 가톨릭의 약속은 상업 광고와 비슷하기 때문이다(이공연 360). 블룸이 상상 속에서 목욕을 하는 장면은 ‘성전 정화’를 엠블럼(emblem)으로 보여준다. 교회인 블룸의 몸이 깨끗해지는 것이다.

블룸이 성체성사, 고백성사를 비롯한 가톨릭 의식을 모독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느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다. 가톨릭의 의식은 베드로를 시작으로 하는 초대 교회로부터 수천 년을 걸쳐 내려온 전통이다. 블룸은 그 의식이 신자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하는, 스스로의 안정이나 영적 위로로만 머무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다(U 5.353-68). 가톨릭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을 자신의 영적 쉼이나 삶의 실천에까지 끌고 가지 못한다. 이들은 오직 자신들의 영적 위안만 찾는다. 그리고 그 어두운 성전을 나서면 누군가를 배신하거나 살인을 저지르고 천하게 여겨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진다. 블룸은 이러한 가톨릭교회의 위선과 형식을 지적함으로써 ‘성전을 정화’하고 있다.

당대 아일랜드 역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처럼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고, 사람들은 파넬(Charles Parnell)과 같이, 자신들을 식민지 지배에서 구원해줄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다.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원했던 인물도 ‘강한 지도자’였다. 힘과 권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모세(Moses)와 같은 인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달랐다. 그는 물리적 권능을 통해 민족에게 정치적 해방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희생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고 처참한 죽임을 당함으로써 죄를 지어 하느님과 멀어진 ‘많은 민족에게’ 영혼의

구원을 가져왔다. 이전까지의 하느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느님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하느님은 그를 믿는 모든 민족의 하느님이 되었다.

블룸의 모호한 정체성은 아일랜드 민족주의에 포섭되는 것을 거부한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종교, 하나의 진리를 ‘부패하고 형식화된’ 위선적 체제로 파악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활 동안 대개 사람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며 ‘살리는’ 일에 집중하였다. 이런 그가 상업화된 교회를 정화하는 모습은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 대비된다.<sup>3)</sup> 이는 기존의 견고한 형식, 구태의연한 구질서를 깨어야 진정한 구원과 삶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예수는 이스라엘 민족이 겉보기식의 성전이 아닌, 진정한 사랑의 하느님을 보길 원했던 것이다. 건물이 아닌 하느님 자체를 보게 한 것이다.

가톨릭교회의 위선은 포교를 대의로 삼아 제국주의, 식민주의에 일조하면서 절정에 이른다. 아편에 대한 언급은 제국주의가 얼마나 비도덕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U* 5.327). 영국은 대항해 이후 해외 식민지를 자원의 공급처 및 시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자본주의를 발전시킨다. 그러나 식민지에서의 무역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피식민지 국민을 아편에 중독되게 한다. 이처럼 무력과 금전욕은 식민주의로 이어졌고, 가톨릭 종교의 포교는 이러한 실제적 목표를 이상으로 포장하는 데에 기여하게 된다. 데니스 캐리(Denis Carey)가 가톨릭 신자였음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블룸은 앞서 예수회의 성 피터 클레이버(St. Peter Claver)와 데니스 캐리를 합쳐 피터 캐리(Peter Carey)로 떠올린다(*U* 5.379-81). 성 피터 클레이버는 콜롬비아, 남미, 아프리카 등을 44년 동안 순례하며 선교한 스페인 예수회 신부이다(이공연 354). 따라서 이는 가톨릭 포교와 배신, 살인을 동일선상에서 논의

3) 유대인/유대인들의 과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과 환금상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밧줄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쫓아내시고 환금상들의 돈을 쏟아버리며 그 상을 들러 엮으셨다. 그리고 비둘기 장수들에게 “이것들을 거두어 가라. 다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고 꾸짖으셨다(요한 14: 13-16).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더블린에는 다양한 식민주의의 잔재들이 존재한다. 군 모집 포스터도 그러하고 그들이 즐기는 크리켓도 그러하다. 더블린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더 문명인이며 이성적인 민족이라 자부한다. 그러나 블룸은 실상 더블린 사람들이 자신들도 피식민지 국민이면서 가톨릭교회라는 명분으로 다른 나라에 우월감을 갖거나 식민주의에 동조하는 것의 문제점을 간파하고 있다.

일례로 블룸 역시 비누를 신문에 넣는다(감춘다)(U 5.543-44). 이때 비누는 아일랜드산이지만, 길혜령이 밝히듯 먼지는 노동 계급의 증거였고 빅토리아시기 중류층 사람들은 청결을 추구함으로써 그들의 계급이 낮지 않음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청결은 식민주의의 대의로 기능하였고 이와 관련한 비누 상업 광고가 광범위하게 퍼졌다(417-18). 더블린의 일상을 담고 있는 신문에 비누가 감추어진다는 것은 아일랜드 더블린에 얼마나 많은 식민주의의 잔재들이 숨어 있는지를 은유한다. 조이스는 매우 현실적으로 보이는 다양한 사물의 묘사에도 특정 상징이나 은유를 감추는 경향을 보인다.

블룸의 캐릭터를 성경과 헬레니즘의 차원에서 더 분석해 보자. 호머의 원전에서 울리시스는 반영웅(anti-hero)의 모습을 보인다. 그는 힘과 용감성을 드러내는 전통적인 영웅이 아니다. 실제로 로터스 이터스의 섬으로 오기 전에 그들은 다른 지역을 약탈하였고 지원군이 들이닥치자 혼비백산 도망친다. 오디세우스는 피와 지략을 활용하면서 다양한 난관을 헤쳐나간다. 블룸 역시 완벽한 인물이 아니다. 그는 소외당한 인물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특히 여성들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기도 한다. 머코이와 대화를 하면서 블룸은 호텔 앞의 여성에게 시선을 둔다. 그가 떠올리는 표현들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적이다. 그는 “콧대 높은” 여성이 남성과 특정한 관계가 되면 나긋나긋해진다고 말하며(U 5.104), 여성의 몸을 뚫어지게 쳐다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에 대해 많이 알려진 바는 없다. 일부 속설은 예수가 한 남자로서 마리아(Mary the Magdalene)를 사랑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다. 또한, 예수는 돌팔매질을 당할 위기에 처한 여성을 포용한다(루가 7:36-50). 다시 말해 당대의 여성에게 강조되는 순결, 정조에 대해 비교적 유연한 태도, 정확히 말하자면 불쌍히 여기는 자세를 취한다. 이는 블룸이 자신의 아내 몰리의 부정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블룸은 한 여성으로서 자신의 아내가 갖는 욕망에 돌을 던지지 않는다. 또 자신 역시 언어를 통한(마사와의 펜팔을 통한) 성적 유희를 즐기고 있다. 조이스는 「로터스 먹는 종족」 장에서 블룸이 의식 속에 마사와 마리아(Maria)를 떠올리는 것을 보여준다. 블룸은 말을 통해(words) 마사와 연애를 하고, 자신의 말을 이해하는(서로를 충분히 이해하는) 마리아인 몰리를 사랑한다.

더블린에서 가톨릭의 영향으로 여성의 성은 철저히 통제된다. 그러나 블룸은 자신의 성을 긍정함으로써 여성의 성 또한 인정한다. 그는 자신의 ‘살아있는 몸’을 교회로 선포함으로써 다양한 억압(성적 억압으로 상징되는)을 해체한다. 이에 조이스는 가톨릭에서 가장 비장한 예수님의 선포, “이는 나의 몸이다”를 블룸의 목욕 장면을 상상하면서 넣는 것이다. 이로써 여성의 몸을 조이는(여성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뽑아야 하는) 핀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박은 못과 동일시하고, 물속의 자유로운 남성의 신체를 ‘살아있는 몸’으로, 새로운 계명이자 교회로 선포한다.

예수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이해하고 여성과 죄인(세리를 포함한)을 가까이한 것처럼 블룸 역시 여성을 연민의 시선으로 볼 때가 많다. 블룸이 광고업자인 것은 그 역시 자본주의의 확장에 이바지하는 죄인임을 보여준다.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 임한 것처럼 블룸 역시 죄인으로서 욕망에 휩싸인 인물로 그려진다. 예수는 당대 사람들의 시선에서 혁신적 사고를 하고 있었고, 블룸 역시 어느 한 분류로 포섭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러나 예수와 블룸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그것은 예수가 원죄가 없는 분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블룸은 세상의 온갖 풍파에 ‘달고 닳은’ 인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그는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다. 그에게는 특별한

원칙이나 이념이 없다. 때문에, 그는 모두(모든 민족)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이자 아무도 아닌 자가 될 수 있다. 예수와 달리 블룸은 돈을 벌기 위해 상품의 가치를 부풀리는 광고업에 종사한다. 그는 삶 안에 뿌리를 박고 있는, 죄인이자 세속적인 욕망에 빠진 일반인이다. 그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민족주의자들에게 소외되고 조롱받는 존재이기도 하다. 물론 예수 역시 공생활 전에는 양아버지 요셉(Joseph)의 영향으로 목수 일을 하였을 것이다. 예수와 블룸 모두 그다지 존경받는 위치에 있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다만, 예수는 제자들을 파견할 때에도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채 그들을 받아들이는 집에 머물 것을 권고하였다. 재산이 많은 이에게는 이웃에게 가진 것을 모두 나누어주고 그를 따를 것을 권하였고(마르코 10:17-23), 가족이 있었던 베드로 역시도 가족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게 하였다.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것은 세속의 가치에서 벗어남을, 고난의 길을 의미했다. 초기 교회 공동체 역시 공산주의처럼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모습으로 로마인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세속의 가치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 가치에 역행하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다.

그러나 블룸의 직업이 광고업임은 특기할 만하다. 그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어찌면 영국인들에게 부역하는 세리와 같은 존재인지도 모른다. 작품 내에서 블룸은 가톨릭에서 금지하는 자위행위나 관음증 등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는 「로터스 먹는 종족」장에서 성생활을 하지 않는 가톨릭 사제를 예술이나 음식으로 욕망을 대체하는 사람으로 그려낸다(U 5.404-07). 때문에 『율리시스』에는 흔히 배가 나온 사제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부정하고 숨긴다. 카스트라토(Castrato)처럼 성이 배제된 사제는 신자들에게 ‘생명의 말씀’ 전할 수 없다. 그에 비해 조이스는 블룸의 민망한 모습들을 그대로 작품에 노출시킨다. 그런 민망한 인물을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인물로 심어 놓은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블룸은 마치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것처럼 가장 낮은 곳에 존재한다. 그는 욕망에 휩싸이기도 하고 그 욕망을 민망하게 충족시키는 모습을 그대로 노정한다. 그렇기에 그는 사람들의 멸시와 모욕을 그대로 받아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다. 물론 조이스는 그를 완전한 사랑의 화신으로 그려내지도 않는다. 블룸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성들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도 있으며, 지나치게 외설적인 측면도 보인다. 그러나 그는 담배를 피우는 소년, 아버지를 찾는 소녀가 술집 근처를 배회하는 것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는다(U 5.5-9). 그는 자신이 세속에 물들어 있고 소외당하며 일정한 곳에 소속되지 않기에 모두를 포용할 수 있고 세상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진정한 실체로서의 몸을 인정하는, 생명의 스승이 될 수 있다.

## V. 결론

블룸의 의식 안에는 저속한 광고나 노래가 가끔 끼어 들어오곤 한다. 또한, 머코이와의 대화에서 블룸의 의식에는 머코이의 말, 길 건너 마차를 타려는 여성을 보며 드는 생각, 이전에 있었던 일 등이 동시에 떠오르는데, 이렇듯 다양한 것들이 끼어있는 그의 의식은 그의 성적 관심 및 모티브를 그대로 재현한다. 따라서 마차에 올라타는 여인을 보는 블룸의 시야를 막고 끼어드는 “육중한 전차”(U 5.131)는 조이스의 『율리시스』 서술 방식을 상징화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약사에게 나는 냄새를 표현하는 “sandy shrivelled smell”(U 5.472)은 고대 영어의 두운을 보여주어 기독교 이전의 세계를 떠올리게 한다. 헤브라이즘이 본격적으로 영국에 이식되기 전의 고대 영문학은 전쟁, 운명 등의 어둠을 다루곤 하였다. “shrunk skull”(U 5.473)은 이러한 고대 영문학을 떠올리는 대표적인 이미지이다. 조이스는 약국을 로터스가 제조되는 곳으로 그려내는데, 이렇게 조제되는 약물들은 리트머스 종이(litmus paper)로 시험할 수 있다(U 5.481).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마태오 4:7)는 신약의 구절과 반대되는 지점이다.

이렇듯 조이스는 「로터스 먹는 종족」의 서술 방식과 그 내용에서 서구

문화의 뿌리와 역사를 모두 짚어내고 있다. 즉, 영문학의 뿌리인 고대 영문학에서부터 이후 유입된 헬레니즘적 요소, 그리고 헤브라이즘의 영향을 한 장 안에 모두 담은 것이다. 「로터스 먹는 종족」 장은 조이스의 『율리시스』 전체에서 비교적 쉬운 글이라 간주 되어 왔지만, 새로운 그리스도로서 블룸을 형상화한다든지 더블린의 마비 상태를 지적한다는 점에서 『율리시스』 중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특히 남성의 성적 활력을 강조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주의 깊게 읽어야 할 장이다.

기독교적 세계관이 지배적이었던 20세기 초반 더블린은 새로운 그리스도적 인물인 블룸의 ‘예술의 헤브라이즘’을 구현하는 것이다. 조이스는 한쪽으로 치우친 더블린의 세계를 균형 있게 다듬어 가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기독교가 성을 금기시하였다면, 조이스는 인간의 욕망을 인정함으로써 기독교를 철저히 해체한다. 헬레니즘이 표상하는 풍성한 미적 감각과 예술의 정신, 인간중심주의 등이 헤브라이즘으로 억제되는 현실에서, 「로터스 먹는 종족」 장은 헬레니즘을 표상하는 ‘예술’을 통해, 자유롭고 허용적이었던 그리스도교 초기의 헤브라이즘 세계를 복원하기 위해 율리시스의 서사를 활용한다.

이에 상징계로서 언어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언어를 통해 마비된 현실을 재현한다. 가톨릭교회의 교리와 인습에 반항하면서 인간의 몸과 성적 활력을 강조한다. 죽어 있는 전통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을 추구한다. 마사의 꽃은 여성의 몸으로, 사제의 몸으로,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하여 마지막으로는 블룸의 남근으로 치환된다. 성이 박제되고 갇히고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궁의 양수 속 태아처럼 편안하게 생명을 품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율리시스』의 「로터스 먹는 종족」 장은 새로운 그리스도로서 블룸을 제시하면서 끝이 난다. 십자가에 박혀 있는 세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탕에 누운 가로로 블룸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리스도에서 편안하게 누워있는 블룸으로 새 계명을 제시한다. 그리하여 성은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죄가 되지 않는다. 구약에서 하느님이 “번성하라”(창세기 1:28)고 축복한 것처럼, 남성의 성적 활력은 축복이며 구원의 표징이 된다.

이런 점에서 조이스의 새로운 그리스도상은 본질에 있어 인간중심주의인 헬레니즘과 통하며 헤브라이즘의 진정한 기쁜 소식, “복음”으로 선포되고 있다.

(국민대)

## 인용문헌

- 손승희. 「조이스의 「로터스 먹는 종족」 장에 나온 두 꽃」. 『제임스조이스 저널』, 제27권 2호, 2021, pp. 191-210.
- 이금연. 「교회의 의식들에 대한 조이스의 시선」. 『제임스조이스저널』, 제5권, 1999, pp. 347-63.
-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성경』.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6.
- 제임스 조이스. 『율리시스』. 이종일 역, 문학동네, 2023. (출판 예정)
- 호메로스. 『오딧세이』. 鄭炳高 역, 문학당, 1980.
- Caspel, P. P. J. Van. “Father and Son in the ‘Lotus-Eaters’ Episode of Joyce’s *Ulysses*.” *English Studies*, vol. 60, no. 5, 1979, pp. 593-602.
- Fin, Anna M. “A Bloom without a Flower, or How to Read ‘Lotus Eaters’.” *James Joyce Quarterly*, vol. 52, no. 3-4, 2015, pp. 623-35.
- Hung, Hsin-yu. ““They Like it Because No-one Can Hear’: A Derridean Reading of Joyce’s Floral Language in ‘Lotus Eaters’.” *James Joyce Quarterly*, vol. 45, no. 2, 2008, pp. 348-56.
- Joyce, James. *Ulysses: the Corrected Text*, edited by Hans Walter Gabler et al., Random House, 1986.
- Kil, Hey Ryoung. “Soap Advertisements and *Ulysses*: The Brooke’s Monkey Brand Ad and the Capital Couple.” *James Joyce Quarterly*, vol. 47, no. 3, 2010, pp. 417-26.

**Abstract**

Hellenism and Hebraism: Reading the “Lotus Eaters”  
 Episode of Joyce’s *Ulysses*

Seojung Kang

James Joyce’s *Ulysses* presents new humanism and portrays a new image of Christ. Thereby, it deconstructs early 20th century Dublin, a city based on the two pillars of Western culture, Hellenism and Hebraism. The lotus flower paralyzes the minds of those who eat by triggering in the urge to indulge in pleasure. Joyce displays discrete forms of paralysis encountered on Dublin streets through Bloom’s eyes, including horse racing, the Irish penchant for religion, and colonial remnants that Dubliners fail to recognize. The male protagonist Bloom’s exchange of love letters with Martha Clifford is also merely lotus eating: he tries to satisfy his desires through language. Joyce also associates the image of a man floating in the sea reading a book with the properties of lotus eating, manifesting the lure of language inscribed in books as an effect of ingesting the lotus flower. Above all, the Catholic religion represents the most evident lotus in this chapter: Bloom secularizes the Eucharist during the Mass, elucidating that the body of a living man is a better means of salvation than eating a ‘dead body.’ *Ulysses* focuses primarily on the sexual vitality of women: however, the chapter “Lotus Eaters” attends to the reproductive abilities of men. Bloom’s immersion in the water in the final scene of the chapter amounts to the declaration that he is purifying the church as a new Christ of life. Christ in the symbolic world is replaced by Christ in the real world by connecting Christ, the Word, with the sexually inactive love letter (word), then shifting to the author’s work (book), and finally moving to

Bloom's body.

■ Key words: “Lotus Eaters,” Christ, Homer, Hellenism, Hebraism,  
Colonialism

(「로터스 먹는 종족」, 그리스도, 호머,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식민  
주의)

논문접수: 2023년 5월 13일

논문심사: 2023년 5월 13일

게재확정: 2023년 6월 04일